

투데이 칼럼

독립운동가에게 서훈을

예부터 '역사를 소중하게 가꿀 줄 아는 민족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전해오는 말이 있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반성하며, 그 의미를 터득하게 되면 새로운 희망과 의욕이 솟아나서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은 일제의 그 사나운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조선독립을 선언한 역사적인 대일 항쟁(對日 抗爭)의 날이다. 나라를 잃고 일제 치하의 식민지로 살아가게 된 우리 민족의 쓰라린 참상에 대해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프고 압당한 환경이었다.

1910년 이후 독립운동가들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일념에서, 특히 국외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드는 일에 열중하였다. 대표적인 곳은 만주(중국 동북지방)였으며, 서간도와 북간도에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우리 전북 부안군 상서면 노작마을 고광계(高光契·일명 고광실) 의사는 1920년 10월 대한광복단 합경남도 갑산분단(甲山分團) 공동원으로 활동한 사항이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일본(조선총독부) 고등경찰에서 일본 총리대신과 각 대신 등에게 제출한 보고문서가 새로 발견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원문서(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사본)와 일본에서 발견한 <조선독립운동기이관 책(1967년) 민족주의 운동관, 일본 동경(東京) 원서 방(原簿)에 실린 두 가지 중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하게 활동한 독립운동단체인 대한광복단은 1920년 10월 독립군의 창설이전투 직후 홍범도 장군 등이 삼수·갑산 등 합경도 지방에 국내 세력을 부식(扶植)하고 국내외에서 연계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려 했던 원대한 계획에 따라 결성된, 매우 중요한 조직이다. 그 독립운동 해



고재흠 수필가

심단체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활동한 것으로 보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독립운동 활동 별도 자료를 확인한 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나 다름없는 <매일신보>에 보도기사가 게재되었으며, 1921년 1월 8일 또는 1월 18일자라고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세 번째 독립운동자료로 '전북연구원'에서 간행한 <전북학연구>1호(2019년 12월 31일)에 게재된 박사 장세운 연구위원의 논문에 고광계 의사는 대한광복단(1897~1933)연락원의 직책을 맡아, 1920년 전후 시기에 중국 길림성 장백현(長白縣)과 함경남도 해산진, 고향인 전라남북도 일원과 국내 지역을 왕래하며 항일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사정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고씨 대관(2009년 7월 1일) <독립운동공훈인명록>에는 고광계 의사는 함경남도 해산진에서 주로 활동하는 대한광복단 갑산분단의 국외독립운동기로 활동했다고 명부에 수록되어 있다. 현재 발굴한 6개 문헌에 여섯 번 성함이 수록되는 물론, 대한광복단에서 활동한 연혁이 게재되어 있었으나, 일본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광계 의사는 192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아들 3형제와 함께 의병 7천여 명을 거느리고 금산전투에서 왜적과 혈투 끝에 순절한 고경명 장군의 13세손이다. 선조(先祖)의 의로운 행위를 본받아서인지 젊은 학자의

기백으로 의연히 일어서서 국권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독립운동에 적극 투신했다. 대한광복단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하신 고광계 의사에 대하여 존경을 표하며, 그 정열한 독립정신을 추앙하는 바이다. 한편 한 집안 3종간인 고평(高平) 장군이 대한광복단 본부(중국 북간도 연변 왕청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활동을 했다. 실제로 고광계 의사의 모친(안성녀)께서 평소 고평 장군과 밀접하게 광복활동을 하셨다고 그 정황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셨다.

당시 "진일 한 집은 흥하고 독립운동가 집은 망했다"라는 말이 통용처럼 퍼돌았다. 의사의 집은 부친(고민상) 모친(안성녀)께서 2남 2녀를 두셨다. 한화자로서 당시 훈장(訓長·서당 선생님) 감사료와 농가 소득한 돈은 모두 장남인 의사 고광계의 독립운동자금으로 쓰여져 가정이 파탄되어 생활은 아주 곤궁하게 되었다.

'광복운동을 하는 집'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의사의 부친(고민상)을 주재 소순사가 수시로 찾아와 집을 수색하고 연행하여 상서 주재소에서 조사를 하고, 부안 경찰서로 이송하여 강력한 조사를 받은 것이 수십 차례라고 했다. 어떤 때는 훈장 감의 중에도 연행하여 여러 번 강한 조사를 받았으며, 이웃집에 사는 친척(최봉실 씨)을 연행하여 강한 참고인조사를 몇 차례 받았다고 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라 배고픈 삶이요, 큰 고통은 차가 없으므로 보행으로 18km 정도를 걸어가서 경찰 조사

를 받은 것이니, 가족이나 참고인 등은 모두 비극적인 삶이 아닐 수 없다. 의사(고광계)의 고향은 부안군 상서면 노작마을 산속 오지 마을이다. 조선시대 과거급제자가 11명이 배출된 마을로 선관(成均館)에서 국가적으로 '으뜸마을'이라는 인증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전통적인 유교를 숭상하는 의로운 선비정신의 발로로 대한광복단에서 활동하게 된 동기라 했다.

의사(義士)고광계 부인(정성녀 鄭姓 女)은 건강이 약하여 어지럼증을 앓고 있었는데, 특히 남편의 국내의 광복운동에 대한 열려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 되었다.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 인 고통이 더욱 심하였다. 그 기간 동안 아내의 간병마저 할 수 없는 상황 이어서, 아픈 며느리는 시부모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의사의 슬하에 장녀(재숙 在淑)와 아들(죽촌 竹村)남매의 자손이 번창하여 자녀 손이 80여 명이 되었다. 고광계 의사는 일제강점기내내 일본 비밀경찰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 도망하던 중 임박강변 해산진의 한 남매러지에서 떨어져 사망(1943년 음 2월 12일)하니, 불행하게 객사를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광복단에서 활동하며, 친분이 두터운 친구의 도움으로 연락이 되어 고향인 부안 사창치에 가(假)장묘 하였다.

한 가지 더 아쉽고 원망스러운 것은 1950년 6·25와 9·28 수복 때 고향이 한국전쟁 제의 격전지가 되어 낮에는 경찰, 밤에는 빨치산이 치안을 했다. 빨치산의 은거를 차단키 위하여 국군이 그 지역(청림리·중계리)백여 가옥을 불태워버렸다. 그 과정에서 대한독립운동에 관련된 근거 서류가 완전 소실되었으므로 국가 서훈의 절차가 힘들게 되었다.

대한독립운동 101주년을 맞아 올해는 의사(고광계)님의 독립운동 활동 상황의 공훈을 인정하여, 나라에서는 서훈(褒勳)을 해 주기를 필자는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사설

대통령의 세계 5대 풍력 강국 목표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정책의 첫 현장으로 전북을 선택했다. 부안에 위치한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의 풍력시험동과 전북 서남권해상 풍력 실증 단지를 방문한 것이다. 대통령의 그같은 행보는 그린 뉴딜 정책의 시동으로 비쳐질 수 있다. 시에 재생 에너지의 주요 수단인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2030년까지 세계 5대 풍력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그때 여기 다시 강조해 말할 것이 있다. 전북도는 정부의 뉴딜에 적극 응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 정부는 본래 50만개에서 60만 개사이의 일자리를 만들 것 처럼 했다가 다시 일자리 제공 156만 개를 말하는 것이어서 국민들은 놀라워했다. 그러다가 55만 개 일자리로 조정이 되었는데 최근에 또다시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2025년까지 무려 166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전북도가 정부의 뉴딜 정책이 부응해 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주

어 반가웠는데 더욱더 긴장해야겠다. 그동안의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지 궁금한 까닭에 하는 말이다. 도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6개 분야의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해서 그 기대가 크다고 반응했던 게 생각난다. 정부의 뉴딜 사업의 규모가 엄청 커진 만큼 이번엔 정말 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북의 제 몫을 지키는 열정을 가져야 할 때이다. 그러려면 전북도가 선택한 디지털 인프라며 지역 개발 SOC며 문화 콘텐츠 등 6개 프로젝트를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문은 다른 지자체의 그것과 중복이 안되게 하기 위함이다. 전북도는 도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많은 일자리 창출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난날 반북해 맞선 바,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은 이유를 전북도 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무수 사업이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것이라야 한다. 전북도는 이점을 늘 유념해야 할 것이다.

발전 현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지역 발전은 도민 모두의 소망이다. 전북도는 뜻을 이루지 못한 현안에 주목해야겠다. 미래 발전을 약속한 주요 현안들을 쟁취 할 일 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 것처럼 지역 발전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 전북도가 발전 현안 추진에 있어서도 도민에게 든든함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전북 발전은 도민 모두의 열원이다. 다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신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게 없다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 지역 발전을 말할 때마다 요구하는 것이 있다. 우리 전북의 현안에 정부 부처가 눈길을 돌리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전북의 현안이 다른 지자체의 그것에 밀려 후순위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본보는 지난날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해 여러 번 촉구한 것이 있다. 군산형 일자리의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겠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군산형 일자리의

목표로 전기자동차 생산과 수소자동차 생산으로 정해진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그런데 말로만 목표가 정해졌을 뿐, 아직까지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완주군에 전국 최초로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생긴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이제 수소자동차 생산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내년경까지 미루지 말고 작업을 앞당기자는 것이다. 그게 군산형 일자리로 정해졌다면 지체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미적거렸다면 다른 지자체에게 좋은 일만 시킬지도 모른다.

전북도가 앞장 서서 발전 현안에 추진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일자리가 늘 부족해서 실업자들이 다른 광역 시도 지역보다 많다. 따라서 발전 현안을 위해서라면 약삭 같이 덤벼들고 그리고 한창에 밀어붙여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고서는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가 없다. 전북도는 보다 옹골찬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필자가 경찰 근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은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아닐까 싶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제적,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입금하게 하는 사기 형태이다. 성별로 보았을 때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이인 40대 남성, 30대 여성이 피해건수가 제일 많

보이스피싱, 당신의 지갑도 안전하지 않다

있다. 전화금융 사기범들은 대부분 외국에 거주하면서 대포전화,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송금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일망타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스스로 어

떻게 대처해야할까? 첫째,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절대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 링크나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절대 열

지 말고 삭제해야한다. 셋째,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등 의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곧바로 전화를 끊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금융거래시 항상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 박재원 전북지방경찰청 17동대경장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